제5강 분할의 방법 Ⅱ

(1교시)

분할법은 취합=모음, 분할=나눔, 그리고 결합=엮음을 둘러싸고서 전개되는 '변증법'이라는 플라톤적 탐구 방법의 한 요소이다. 초기의 저작들에서 형상들의 존재 증명에 애쓰던 플라톤은 후기로 가면서 형상들 사이의 관계들의 규명에 힘쓴다.(취합=모음과 결합=엮음은 『파이드로스』에서 이미 나타나지만, 결합=엮음은 『소피스테스』 편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플라톤이 닦아놓은 길은 데카르트에 의해 다시 다듬어져 '분석과 종합'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고 방법으로서 오늘날까지 내려온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논리적-과학적 사고 방법론이며, '합리(주의)적 사고'의 원형이다.

플라톤에게 변증법은 대수학, 기하학(입체 기하학 포함), 천문학, 음악(화성학)에 통달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에서 터득해야 할 최고의 학문이다.("마치 갓돌처럼 다른 모든 교과들 위에 놓이는" 학문) 그것은 감각이 아닌 이성에 근거하는 학문이며, 순수사유에 근거하는 앎이다. 그 궁극적인 목적인 선의 형상에 도달하는 것이다.(『국가』 532A-B) 변증법은 근본적 학문이기에 다른 학문들이 전제하고 있는 가설들에 근거를 제공해 준다. 즉 원리에로 나아가는 학문인 것이다. 이것은 곧 생성에 관련해 성립하는 지식인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본질/실재에 관련해 성립하는 지식인 '합리적 지식'에 속한다. 사물들의 본질을 인식한다는 것은 곧 타자들과 섞여 있게 마련인 그것들의 현실적 양태에서 시작해 그 순수한 핵심을 가려냄을 뜻한다. 여기에서 분할=나눔이 변증법의 핵심 요소를 이룸을 알 수 있다.(특히 선의 형상을 가려내는 것, 그 순수한 현존으로서의 선의 형상을 보는 것이 궁극의 목표이다) 그러나 나눔은 이미 전체에 대한 안목을 전제한다. 그래서 변증법적 자질을 갖춘 사람은 실재의 본성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 —두루 봄— 을 갖춘 사람이다. 따라서 변증법에는 모음과 나눔의 계기가 깃들어 있다.

플라톤이 모음과 나눔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시작한 것은 『파이드로스』에서이다. 플라톤은 이 대화편에서 하나와 여럿의 관계를 논한다. 이것은 곧 나눔과 모음의 문제이다. 여럿을 나누는 것, 하나의 관절들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포정(庖丁)의 해우(解牛)를 연상시킨다.
플라톤의 분할술은 단순한 논리적 연산이 아니다. 그것은 형상들 사이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고, 형상들의 존재 자체를 이미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눔, 모음, 엮음은 존재론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분할술의 의미를 좀더 천착하기 전에 우선 분할술에 입각해 소피스트들을 찾아내 보자.

플라톤은 낚시꾼을 규정했던 방식을 본=모델로 삼아 소피스트 규정에 나선다. 플라톤은, 매우 익살스럽게도, 소피스트를 일종의 낚시꾼으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낚시꾼이라는 '사소한 예'에는 주도면밀한 복선이 깔려 있었던 셈이다.

www.artnstudy.com

▶ 플라톤의 첫 번째 분할

플라톤은 소피스트들을 사냥꾼들과 동일시하는 선이해를 깔고 나간다. 낚시꾼은 헤엄치는 동물들을 사냥하고, 소피스트는 걸어 다니는 동물들을 사냥한다.

0. 소피스트술은 일종의 기예이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보다 얻어내는 것이기에 획득술에 속한다. 나아가 획득술 중에서도 포획에 속한다. 즉 소피스트들은 사냥꾼들인 것이다. 사냥꾼이되 당연히 생명체들의 사냥꾼들이다. 소피스트들은 헤엄치는 동물들 사냥과 걸어 다니는 동물들 사냥의 어디에 속하는가? 소피스트들은 사람들을 사냥하기에 걸어 다니는 동물들의 사냥에 속한다. 낚시꾼이 헤엄치는 동물들을 사냥한다면, 소피스트들은 걸어 다니는 동물들을 사냥한다.

1. 육지 동물 사냥에는 야생 동물들 사냥과 길들인 동물들 사냥이 있다. 소피스트들은 사냥을 위해 산이나 들판으로 가지 않고 폴리스로 간다는 점에서 길들여진 동물들(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사냥한다. 즉 소피스트들은 부(富)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간다. 폴리스에는 일정한 제도, 관례, 교육, … 등에 의해 길들여지는 젊은이들이 존재하고, 정치를 꿈꾸는, 유리한 변론을 배우고자 하는 그들은 소피스트들을 원한다. 그래서 소피스트술은 길들인 동물 사냥에 속한다.

2. 소피스트술은 해적질이나 노예사냥, 참주정치, 전쟁, … 등을 통해 인간을 획득하는 강제적인 사냥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연설, 대중 선동, 사교(社交)를 위해 수사(修辭)를 가르침으로써 젊은이들을 사냥하는 기예인 것이다. 때문에 소피스트술은 기본적으로 설득술에 속한다.

3. 소피스트술은 공공적인 기예가 아니라 사사로운 기예이기에 '개인 사냥술'에 속한다.

4. 개인 사냥술에는 마음에 드는 이성(異性)에게 선물을 주어 유혹하는 구애술(求愛術) – 오늘날 대중문화에서 묘사되는 '헌팅'과 일치한다 – 과 그와 달리 보수를 받는 사냥술이 구분된다.

5. 보수를 받는 사냥술 중 하나는 남에게 아첨을 떨어 돈을 버는 아첨꾼들 – 현대적 의미에서의 '빈대'와 통한다 – 과 빼어난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고('덕=아레테'를 가르쳐주겠다고) 속여서 돈을 버는 지식 사기꾼들이 있다. 플라톤은 바로 이 사기꾼들이 소피스트들이라고 말한다.

www.artnstudy.com